

KIA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 참여 4인의 다짐



‘무휴일 훈련’ 내야수 박찬호
“난 감독님의 자랑”



‘새 출발’ 최고참 전현태
“솔선수범해야죠”



‘군복무 일단 멈춤’ 한승혁
“투구동작 바꿀 것”



‘꼬마 포수’ 신범수
“투수 맘 흠치겠다”

무휴일, 최고참, 처음, 다시 얻은 기회... 각기 다른 각오와 목표를 안고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일본 오키나와 행 비행기에 올랐다.

28일 오전 비행기로 캠프지로 향한 KIA 선수들은 29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다. 일상적인 마무리 훈련이지만 이번 캠프에 임하는 마음이 남다른 이들이 있다. 캠프 전 경기대 감독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4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말한 뒤 “아, 휴식 없이 캠프를 치르는 선수도 있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김 감독을 웃게 한 선수는 내야수 박찬호다. 시즌 중반 김 감독과 타율 내기를 했던 박찬호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서 100만원이라는 상금 대신 무휴일 캠프라는 벌칙을 받게 됐다. 고난의 캠프가 기다리지만 박찬호는 “뭐 있나요. 안 쉬면 돼지”라며 의연하다.

박찬호는 “계산해보니 남들보다 5일 더 운동을 하는 셈이다. 힘들기는 하겠

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 내 것을 찾는 시간을 보내겠다. 시즌 끝나고 훈련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다. 시즌 때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을 했었다. 방망이를 세우고, 눈 쪽으로 가깝게 가져오는 등 짧고 강하게 치려고 하고 있다. 방망이 헤드에 이용한 타격도 연습하고 있다. 감독님의 고민을 자랑으로 바꿔드려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새 출발의 시즌, 최고참으로서 온몸을 불태우겠다는 선수도 있다. 올 시즌 한화에서 KIA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내야수 전현태는 1986년생, 캠프 최고참이다. 마지막 두 경기에 나와 기록한 2타수 무안타가 전현태의 올 시즌의 전부.

전현태는 “훈련하는 거는 똑같지만 친구 (최)병연이와 함께 최고참이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다. 내가 해야 후배들도 움직이는 것이니까 다른 말 없이 내가 먼저 움직이면서 좋은 마무리 캠프를 보내겠다”고 언급했다.

두근두근 1일을 기다리는 선수도 있다. 본진이 28일 캠프에 도착했고, 내달 1일에는 4명의 신인 야수가 오키나와로 향한다.

프로에서의 첫 캠프를 앞둔 ‘꼬마 포수’ 신범수는 “어떻게 집을 챙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캠프에 간다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긴장이 된다. 운동을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배님들과 생활하는 게 걱정이다”며 “지명 라운드가 낮아서 많이 걱정하는데 기회가 왔으니 열심히 하겠다. 내년엔 감독님이 (전력 구상에)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게 캠프의 첫 번째 목표다. 선배님들도 방망이를 잘 치시는 데 (최)병연이 치는 것 많이 보고 배우고 의지하면서 캠프를 치르겠다. 무엇보다 포수니까 투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 볼 잘 받아주고, 안정적이게 잘 잡는다는 이야기를 들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각별의 시간을 준비하던 투수 한승혁

은 급히 오키나와로 가는 짐을 싸다. 한승혁은 상무에서 군복무를 하기 위해 시즌이 끝난 뒤 신체검사 재검을 받고 서류를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잠시 익숙했던 곳을 떠나 성숙의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한승혁은 그러나 팔꿈치 수술 경력 탓에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서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

한승혁은 “군복무를 하면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였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하지만 각오는 같다.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이다. 올 시즌 초반에 좋았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좋은 보직을 유지하지 못한 게 아쉽다. 시즌 중반에 폼 바꾸기도 했는데 이번 캠프에서 스로잉을 짧게 바꾸려고 한다. 코치님과 상의해서 변화를 줘야”며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번 시즌을 정리하고, 내년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승1패’ 삼성-두산 잠실서 KS 3차전

클로이드-장원준 선발 격돌

1승 1패로 맞선 상황, 한국시리즈 주도권을 쥐고자 타일러 클로이드(28·삼성 라이온즈·왼쪽)와 장원준(30·두산 베어스·오른쪽)이 출격한다.

삼성과 두산은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2015 타이거뱅크 KBO리그 한국시리즈 3차전 선발로 클로이드와 장원준을 내세웠다. 예정된 수순이다.

윤성환이 해외 원정 도박 파문으로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되자 류중일 삼성 감독은 알프레도 피가로-장원삼-클로이드로 선발 로테이션을 짰다. 클로이드가 잠실 경기에 강한 점이 선발 순서를 정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됐다.

클로이드는 올 시즌 11승 11패 평균자책점 5.19를 기록했다. 그가 가장 좋은 성적 올린 장소는 잠실이었다. 클로이드는 잠실에서 4경기를 치러 2승 1패 평균자책점 2.84를 기록했다. 두산전 성적은 1승 1패 평균자책점 4.50이었다. 6월 18일 대구경기에서 6이닝 8피안타 4실점으로 패전의 멍에를 썼고, 8월 18일 잠실에서는 6이닝 7피안타 2실점으로 승리를 챙겼다.

11일 준플레이오프 3차전(6이닝 6피안타 2실점)에서 생애 첫 포스트시즌 선발승을 거두고, 플레이오프 두 경기(19일 2차

전 7이닝 4피안타 무실점, 24일 5차전 6이닝 9피안타 4실점)에서도 호투한 장원준은 기세를 몰아 한국시리즈 개인 첫 등판에서도 승리를 노린다. 관건은 ‘체력’이다. 장원준은 2경기 연속 나흘 휴식 후 등판하는 험거운 일정을 소화한다.

장원준도 잠실 경기가 편안하다. 올 시즌 12승 12패 평균자책점 4.08을 기록한 장원준은 잠실에서 8승 7패 평균자책점 3.44로 잘 던졌다. 삼성전 성적은 4경기 2승 2패 평균자책점 6.23이다. 하지만 8월 2일 잠실 삼성전에서는 7이닝 6피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대구 삼성전 성적(3경기 1승 2패 평균자책점 9.58)보다 월등히 좋다.

클로이드와 장원준 모두 구위로 상대를 억누르는 파워피처는 아니다. 피안타율도 클로이드 0.297, 장원준 0.281로 다소 높다. 넓은 잠실밭에서 펼쳐질 삼성과 두산 야수진의 수비 대결이 한국시리즈 3차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클로이드는 민병현에게 5타수 3안타, 김재호에게 4타수 2안타, 김현수-양의지에게 5타수 2안타를 허용했다. 장원준은 김상수에게 6타수 3안타, 최형우에게 9타수 4안타, 박성민·박한이에게 5타수 2안타를 내줬다. /연합뉴스



박병호 ML행 내달 9일 결정난다

넥센 2일 포스팅 공시 요청... 6일 메이저 구단 응찰

이르면 11월 말이나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또 한 명의 한국인 메이저리그 야수의 탄생을 볼 수 있을 듯하다.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는 거포 박병호(29·넥센)가 11월 2일 드디어 메이저리그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밟는다. 이후 11월 6일 미국 동부 표준시 17시까지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포스팅 응찰이 진행된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11월 7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새벽에 응찰액 최고가를 KBO에 전달하면 KBO는 즉각 넥센에 이를 통보한다. 넥센은 11월 9일 포스팅 수용 여부를 논의한 후 최종 결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보여준 관심이나 박병호가 한국프로야구에 남긴 뚜렷한 발자취를 감안하면 응찰액이 적어서 메이저리그 진출이 불발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넥센 구단이 앞서 강정호(28·피츠버그)보다 한 달 정도 포스팅 시점을 앞당긴 것도 이러한 자신감 때문이다. 지난해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단장들의 윈터 미팅이 끝난 이후인 12월 15일에 포스팅을 요청했다. 각 구단의 자유계약선수(FA) 영입이 대부분 마무리된 이후였다. 쓸만한 선수는 대부분 떠난 뒤 강정호라는 신선한 이름을 내놓는 전략이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한 넥센의 전략은 적중했고, 강정호는 피츠버그 유니폼을 입었다.

박병호는 상황이 다르다. 강정호의 후광까지 더해져 목동구장에는 거의 매 경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강정호의 성공으로 한국인 야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박병호의 2년 연속 50홈런까지 더해졌다. 지금까지 박병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 메이저리그 구단은 샌디에이고, 보스턴, 텍사스, 클리블랜드 등으로 알려졌다. 강정호의 성공으로 한국인 야수에 대한 호감이 커진 피츠버그가 또 한 명의 한국인 야수 영입에 뛰어날 가능성도 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관심이 지난해 강정호 때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병호의 포스팅 금액은 강정호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강정호의 야구를 대하는 자세나 철저한 자기관리 등을 통해 한국 선수들이 중남미 선수들보다 훨씬 낫다는 소문이 메이저리그 구단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피츠버그 지역 매체인 ‘트리라이브’는 전 뉴욕 메츠 단장이자 라디오 분석가인 짐 두렛의 말을 인용해 박병호의 포스팅 금액이 2000만달러(약 226억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이 매체는 “새로운 시장에서 성공 스토리가 나오면 가격은 오르게 마련”이라며 쿠바 출신의 요에니스 세스페데스와 호세 아브레우, 일본인 메이저리거 스즈키 이치로의 성공 사례 이후 후속 주자들의 몸값이 급등한 사례를 꼽았다. /연합뉴스

9회말 동점·연장 14회 끝내기... 캔자스시티 WS 기선 제압

1차전서 메츠 5-4 꺾어

30년 만의 우승을 노리는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월드시리즈 1차전 역대 최장 시간 혈투 끝에 뉴욕 메츠를 꺾고 값진 1승을 올렸다.

캔자스시티는 2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카우프만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 홈 1차전에서 연장 14회말 에릭 호스머의 끝내기 희생플라이로 뉴욕 메츠를 5-4로 꺾었다.

캔자스시티는 3-4로 뒤져 패색이 짙던 9회말 1사에서 알렉스 고든이 메츠의 마무리 제우리스 파블리아를 상대로 극적인 중월 솔로 홈런을 쏴 올려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연장 12회말 2사 만루, 연장 13회말 2사 2루의 기회를 날린 캔자스시티는 연장 14회말 찾아 온 기회만은 놓치지 않았다.

선두타자 알시데스 에스코바르가 3루수 실책으로 출루한 캔자스시티는 이어 벤 조브리스트가 우전 안타를 날려 무사 1-3루의 기회를 잡았다. 메츠는 로렌조 케인을 거르고 베이스를 꼭 채웠다.

8회초 실책을 저질러 연장 승부의 빌미를 제공한 에릭 호스머는 메츠의 6번째 투수 바틀로 콜론을 상대로 우익수 방면으로 깊은 희생플라이를 날려 결사해제했다.

두 팀은 29일 같은 장소에서 조니 쿠에토(캔자스시티)와 제이컵 디그롬(메츠)을 내세워 2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 캔자스시티 로열스 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1차전 경기에서 연장 14회 5-4 끝내기 승을 거둔 로열스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